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 상생이슈 이것부터 해결

<5>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난 10여 년간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물론 국토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시작만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관광산업 역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5-6기를 거쳐 민선 7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10년 방치... 민선7기 최우선 과제 삼아야

최근 공모 참여 민간사업자 부적격 판정에 또다시 표류 위기 소상공인 보호·지역사회 공헌...대기업 투자할 조건 제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등산 개발 다시 '원점' =시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사결과 A업체는 개발계획(230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적과 자금동원 능력, 사회공헌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다시 재공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

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경난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 부지는 빈 터로 남아 있다. 다만, 27층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되고 있다.

◇상가 면적 줄여 결과적으로 대기업 참여 막아=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가장 큰 변수는 일부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다.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유통재벌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관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가시설 면적을 2만 4170㎡ 이하로 제한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업계는 "상가시설 면적이 비좁아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등산에 복합쇼핑몰 등을 건설하려면 국내 대기업들도 시민단체의 반대에 사업계획을 대부분 접은 상태다.

◇기업 참여 폭 넓히고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해야=이에 따라 사업 추진은 민선 7기 이윤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몫으로 돌아갔

다. 앞서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어등산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중소상인의 피해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광주시의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민선 7기에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역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에 적절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지역사회 공헌 등을 제안함과 동시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힘세진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영장청구권은 무산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 <관련기사 2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 같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일자리 창출 도정 최우선"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전남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김 당선인은 지난 19일 광주일보와 인터

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남도 당면 현안인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유치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전남 인구 감소는 인구 유출 문제이며, 특히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청년의 위기는 가족의 위기고 사회의 위기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교육·의료 등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인구 200만명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현장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매주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소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해당 지자체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여론 수렴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내일밤 멕시코 상대 벼랑끝 승부

조별리그 2차전

'신태용호'가 멕시코를 상대로 벼랑 끝 승부에 나선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F조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다. <관련기사 20면>

오는 27일 오후 11시 독일과의 최종전

이 기다리고 있지만,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은 사실상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스웨덴전 1차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조별예선 탈락 유력 후보가 됐다.

한국은 21일 1시간가량 비공개 훈련을 하면서 멕시코전을 위한 담금질을 했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웨스트햄), 이브 빙 로사노(에인트호번) 등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공격수들의 발을 묶고, 포백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주력한 한국은 훈련이 끝난 뒤 전세기를 이용해 결전의 장소인 로스토프아레나로 이동했다.

'패배=탈락'을 의미하는 살얼음 승부. 한국은 아시아 최다 출전국(10회)의 자존심도 살려야 한다.

한국은 앞선 스웨덴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유효 슈팅 0'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겼다. 한국이 스웨덴전 패배를 쓴 보약 삼아 16강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소동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등로 603번길 20 (소촌동) | 수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2t),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의미하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